

직장인 87%, 자율포지션제도 긍정적

(기업에 지원자가 희망직무 제안)

“지원자의 강점·잠재력·적극성 등 파악하기 쉬워” 유사한 제도 ‘리버스 인터뷰’에도 호평 압도적

입사 희망 기업에 필요한 직무를 지원자가 스스로 분석하고 제안하는 ‘자율 포지션 제도’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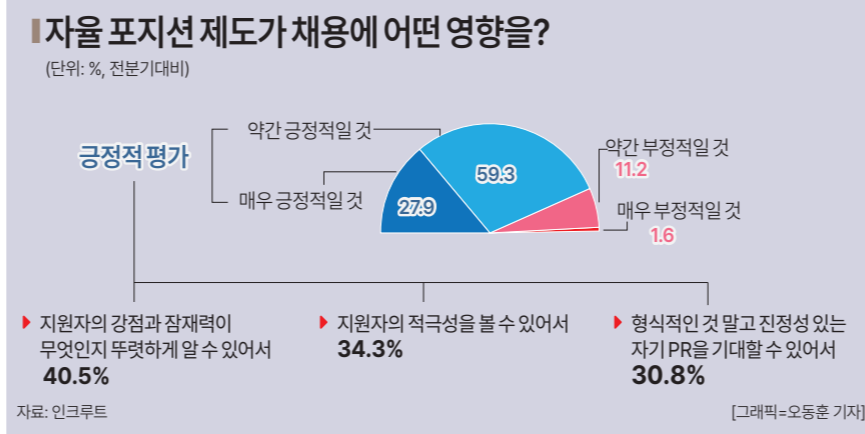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자율 포지션 제도 인식 조사를 위해 직장인과 구직자, 대학생 등 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담당자의 관점에서 자율 포지션 제도가 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매우 긍정적일 것(27.9%) △약간 긍정적일 것(59.3%) △약간 부정적일 것(11.2%) △매우 부정적일 것(1.6%) 순으로

로 나타나 응답자의 87.2%가 해당 제도를 좋게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중복 응답 가능)는 ‘지원자의 강점과 잠재력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어서’가 4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자의 적극성을 볼 수 있어서(34.3%) △형식적인 것 말고 진정성 있는 자기 PR을 기대할 수 있어서(30.8%) 등 지원자 파악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이 밖에 △직원의 업무 및 회사 적응이 비교적 수월할 것 같아서(29.7%) △입사 당락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가능해서(26.3%) 등의 응답도 있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지원자가 내부 사정을 모르고 직무 제안하기에 실제 성사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력직 채용은 더 심화되고 신입 채용이 더 줄게 될 가능성(36.7%) 그리고 △채용 과정이 불투명해질 것(36.7%) 등이 꼽혔다.

자율 포지션 제도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 도입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직장인에게 그 해법을 들었다. 그

결과 직무를 확실히 정하고 관련 경험 쌓기가 41.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반대로 ‘직무 상관없이 최대한 다양한 경험해 보기(35.4%)’라는 응답 또한 많았다.

자율 포지션 제도와 유사한 사례로 구직자가 면접자 또는 대표에게 질문하며 면접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역면접인 리버스 인터뷰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매우 긍정적(28.2%) △약간 긍정적(63.5%) △약간 부정적(7.6%) △매우 부정적(0.8%)으로 대부분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지원자가 면접 전에 기업분석을 더 면밀하게 할 것(46.6%)’과 ‘지원자의 적극성과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43.3%)’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국민 6명중 1명은 �벅 리워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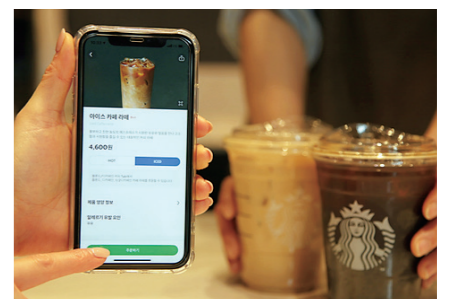
20대 이하 38% 압도적

스타벅스는 8일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수가 9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800만명 돌파 이후 7개월 만에 100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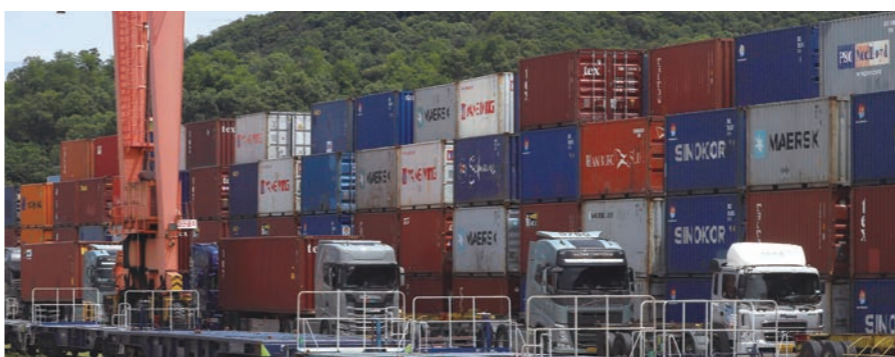
‘스타벅스 리워드’는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 사용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2011년 9월에 시작했다.

회원수 900만명은 스타벅스 리워드 개시 이후 10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30초마다 1명씩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대한민국 인구(5162만명 기준) 6명 중 1명에 해당된다.

900만명 회원들이 적립한 리워드 별의 개수는 누적으로 13억2000만개를 넘어섰다. 회원 전용 생일 음료 쿠폰을 비롯해 월 12개 적립 시마다 제공하는 쿠폰 등 무료 음료 혜택은 1억3800만장을 기록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로열티 프로그램인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수가 90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전국 곳곳 물리적 충돌

운송방해노조원 잇달아 체포 경찰, 정부 방침 따라 엄정 대응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를 맞아 곳곳에서 영업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멘트 등 일부 업체는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6월8일 10시 기준 상황’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명 중 약 18%에 해당하는 4000여명이 지역별로 분산해 철야대기했으며 부산에서는 450여명의 조합원의 야간분회제를 개최했다.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의 약 34%에 해당하는 7500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항만·공항·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으며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은 69.0%로 평소(65.8%)와 비슷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 대비 2~3일치 물량을 사전 운송 조치했으며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 투입을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파업에 따른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7일 시멘트 출하량은 일평균 출하량인 18만t의 10% 이하 수준인 1만5500t으로 감소했다. 시멘트협회는 업계가 하루에 153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벌어질 경우 레미콘 업계와 건설 업계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영업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20분경 경기 이천 하이트리로 공장 앞에서 운송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제품 수송을 위해 드나드는 화물차량을 뚫고 가로막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리로 이천공장은 3일에도 화물연대 노조원이 점거해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 선전현장을 지나던 트레일러 2대를 화물연대 노조원이 막아서며 물병과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8시45분경 화물연대 노조원 1명이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 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조합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영업방해 행위

소식이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일몰제 폐지 등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 갈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7일 입장문을 발표해 “총파업 돌입 직전까지도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대화의 창구 개설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대화와 협의의 지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엄정 대응 방침만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며 화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법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한끼애®
집밥프로젝트

대한민국 인기 메뉴를
만두에 담았다!

“한끼애”는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3. HANSUNG Enterprise